

#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How Can I Know What God  
Wants Me to Do?



한국 오늘의 양식사

신앙 성장 시리즈 12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How Can I Know What God  
Wants Me to Do?

한국 오늘의 양식사



# 차례

발행인의 글 / 김상복 목사.....	4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	6
1. 신비한 표적, 금식, 그리고 동전 던지기 .....	7
2. 무엇을 해야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13
(1)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	14
(2)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십시오 .....	24
(3)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십시오 ..	31
(4)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십시오.....	38
(5) 당신의 자유를 사용하십시오.....	42
3. 조용한 자극.....	51
4.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59



## 오전한 뜻



신앙인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분의 뜻에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의 뜻대로 사

는 것만이 행복한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관차를 고안하고 만든 엔지니어나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입니다. 기차는 그 기차를 고안한 엔지니어가 제일 잘 압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한 생애를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대해서 가장 잘 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차가 철로 위로 가지 않고 탈선한다거나 그 기관이 본래 고안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기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먼저 하나님을 알아

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변하여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제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어서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책자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이라도 일관성 있게 배워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 생애는 비교적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책자를 읽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시면 그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이 책자의 출판을 위해 수고해 주신 『오늘의 양식사』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 5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며  
김 상 복 목사

##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실까요? 평소에 갖지 못하던 어떤 특별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이 갖고 있는 상식에 얼마나 의지해야 할까요? 성경이 내가 원하는 그 문제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간절히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 나를 그냥 못 들은 척 내버려두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선택해 볼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 많거나 아니면 좋은 대안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커트 디 한이 쓴 이 소책자는 이런 혼동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인생을 자신 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성경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운데 큰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

마틴 디 한 2세

## 신비한 표적, 음식, 그리고 동전 던지기

때로는 장보기조차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용 씨리얼(cereal)을 고르는 일도 너무나 종류가 다양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것을 고릅니까? 당연히 이런 결정은(광고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당신의 인생을 바꿀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당신이 내려야 할 많은 결정들 중의 하나입니다. 아파트를 전세 얻을 것인가 아니면 살 것인가하는 것과 같은 결정들은 좀 더 중요한 것들입니다. 시간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저녁시간, 주말, 또는 점심시간을 어떻게 지낼까? 어떤 대학에 갈 것이며 어떤 직업, 혹은 어느 교회에 출석할까, 그리고 누구와 데이트하고 결혼할 것인가와 같은 결정들도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주 가슴아픈 결정들도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신중인 태아가 장차 심각한 장애아로 태어나게 될 것이라면 산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당신이 다니는 회사의 비윤리적인 상행위에 대해서 눈감지 않으면 해고당할 것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고민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린 한 가지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영원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까지 더한다면 우리는 더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판단과 결정을 하는 실수를 범하길 원치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 신비한 표적(하나님께 초자연적인 표적을 구함)
- 금식(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금식함)
- 동전 던지기(나오는 동전 면에 따라 결정함)
- 감정(비이성적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맡김)
- 쭈셔대기(여기 저기 해답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함)
- 내버려두기(사건이 스스로 해결되도록 놔둠)
- 눈감고 책펴기(성경을 아무데나 펼쳐 읽음)
- 대리인 세우기(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 주도록 맡김)
- 꿈꾸기(환상이나 음성을 구함)
- 제비뽑기(뽑힌 막대의 길이가 결정하도록 함)
- 앉아있기(뒤로 미룸)
- 미끄러지기(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선택함)
- 따져보기(감정대신 논리를 따름)

---

“하나님의 인도를 구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최대의 적이 된다.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된다.”

-제이 아이 패커-

---

## 혼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린 결정의 결과로 인해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에 대해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문제들에 대해 항상 명확한 답변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해답을 찾는데 있어서 더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함에 있어 단지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한다면 우리가 발견할 것은 절망, 좌절, 죄의식, 그리고 불확실함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길을 보여주시지는 않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심한 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 어둡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

“어떤 이들은 마치 그들이 곡예사가 공중 밧줄 타기를 하듯이 불안한 걸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매순간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걷고 있는지 의심스러워 합니다.”

---

## 해결책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낙심하고 패배하거나 또는 정신적 밧줄을 타는 것 같은 불안감에 빠져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을 행할 때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확실히 보여 주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 2

### 무엇을 해야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이 하기를 원하는 일이 당신 자신의 인간적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일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여기거나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책자는 우리가 만약 다섯 가지의 기본 원리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필요한 만큼 알 수가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이 다섯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1)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절박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마음이 상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잠언 3장 5,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신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가 너의 길을 곧게 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변의 구절들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후 문맥(1절-10절)은 하나

님께서 그분을 믿고 그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시편 5장 8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할 바를 보여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까요?**

어리석게 너무도 자주 우리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뇌를 주셨기 때문에 결정하는 일에 그분의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해하면 분명해 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이사야 55 : 8,9 ; 로마서 11 : 33-36; 고린도전서 1 : 25).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며(시편 115 : 3), 그분은 전능자이시고(예레미야 32 : 17), 그분은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십

니다(18,19절). 하나님은 필요할 때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시편 37:3-6, 23,24,28).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당신을 찾을 때 현재와 우리의 남은 생애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마태복음 6:33).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 없다고 하는 모든 자를 심판하십니다(로마서 1:18-32).

###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인정함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살거나, 머리를 깎고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또는 하루에 8시간씩 기도를 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몇 가지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표현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하나를 살펴봅시다.

### **하나님을 신뢰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잠언 3:6). 두 살짜리 어린이는 자기의 부모가 얼마나 현명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부엌의 가스레인지 사용법을 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는 부모님께서 왜 자기 스스로 잠잘 시간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님은 그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점점 현명하여지면 부모님에게 조언을 구할 것입니다.

다윗 왕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시편 23:1)라고 썼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에게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맡기고 있는 양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양처럼 주님을 따를 때 주께서 목자와 같이 그를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미 그의 뜻대로 행하기로 헌신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 루이스 스페리 체이퍼**

---

###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겸손’ ‘경건’ ‘경외’ 등의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

식의 근본이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하였고 시편 25편 9절은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꺼이 가르침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은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함이란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 우리의 욕망을 자발적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 몸을 제사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내적인 태도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자신이 주장하려는 태도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된” 마음은 바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님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변화는 믿는 자가 하나

님의 말씀의 진리로 그의 마음을 채울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결과로 하나님의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 기도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결정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야고보서 1:5)

야고보 기자는 시련이 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런지 알기가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을 때, 혹은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떤 결정인가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야고보서 1장 5절은 하나님께 서는 그에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에 옮겨야만 하나님께  
서 그의 뜻을 다음 주에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알렌 레드페스

---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 것은 교만의 증거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자신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9장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험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로 평화조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서둘러서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않고”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쳐 죽이라고 명하였던 민족들과 화친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예를 우리는 골로새서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

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1:9,10)라고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필요로 하는 모든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행치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사람이 자신이 처한 한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모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처한 또 다른 상황에서 그 사람을 인도해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순종할 의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환경이나 사람, 혹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요나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하였으나 그는 다른 길로 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길로 가 버린 요나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을 확실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 지를 알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성경적 원리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지침으로서 우리의 판단력을 사용하기를 기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야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역사하십니다(에베소서 1:11).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빌립보서 2:13).

우리가 비록 과거에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믿는 자들 안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요한복음 14:15-18; 16:7-15). 그렇다면 성령님께서서는 우리가 결정을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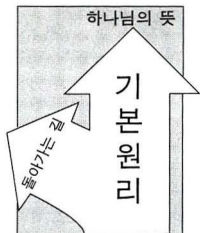
릴 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계시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시는 것입니다(고린도전서 2:6-16).

성령님께서 내적 느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예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사도행전 8:29; 11:28; 13:2; 21:11; 고린도전서 14:30). 그렇지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느낌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낌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과거로부터 가져온 습관적 생각, 심지어는 사탄의 미혹 등 의심스러운 동기에서 비롯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주관적인 느낌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실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성경적인 원리를 찾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현재 당신이 어떤 일에 대해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위해 주님의 또다른 도움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혹 과거에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주님께 기도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 (2)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어떤 게임을 처음 해 볼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직접 게임 설명서를 보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게임 규칙이 사람들에 의해 잘못 해석될 수도 있고 함께 게임을 하는 사람조차 그 규칙을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그 게임을 발명한 사람이 쓴 게임 설명서를 참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처럼 좀 더 복잡한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게임의 법칙”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신이 인생의 법칙을 만드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에 대한 규칙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생에 관한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른 생각과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디모데후서 3:16,17).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직면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불거져 나오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직접적인 대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과 ㉡성경적 원리를 삶의 모든 상황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어떻게 성경을 잘못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성경을 잘못 사용한 예를 보여주는 한 가지 고전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감고 책장 펴기”로 성경을 읽었던 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젊은이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하며 성경을 아무데나 펼쳤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던 것입니다. “(유다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고 써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 더 시도해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는 다시 책장을 넘겨서 손가락으로 짚어보니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이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써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 더 책장을 넘겨서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27절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구절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어리석게 보이는 방법을 비웃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도 흔히 유사한 방법으로 성경을 대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오늘의 운세’ 판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방법으로 문맥을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성경을 그냥 아무데나 펼쳐서 찾는 것이든, 특정한 사람을 대상을 한 메시지를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이든, 아니면 실제로 본문에 있지도 않은 다른 메시지를 본문에서 “끄집어내는 것”이든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지요.

###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주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고려하지 않는 실수를 범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배우자를 버리고 당신이 매력을 느끼는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라고 할지 모른다는 괜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결혼은 영원히 지켜야 할 언약(마태복음 19:6)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오묘한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신명기 29:29) 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장래 계획과 목적과 같은 비밀들을 알아내기 위해 그들의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진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현재 하시는 일을 모두 알거나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의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출애굽기 20 : 3,4)
- 부모님을 공경하라(에베소서 6 : 1-3)
- 살인하지 말라(출애굽기 20 : 13)
- 간음하지 말라(히브리서 13 : 4)
- 거짓말하지 말라(출애굽기 20 : 16 ; 에베소서 4 : 15,25)
- 탐내지 마라(출애굽기 20 : 17 ; 로마서 7 : 7,8)
- 음욕을 품지 말라(마태복음 5 : 27,28)
-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마가복음 11 : 25 ; 에베소서 4 : 32)
- 하나님과 네 이웃을 사랑하라(마가복음 12 : 28-31)



- 거룩하라(베드로전서 1 : 16)
-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린도전서 7 : 39 ; 고린도후서 6 : 14,15)
- 궁핍한 형제를 도우라(요한일서 3 : 16-19)
- 믿음의 형제와 송사하지 말라(고린도전서 6 : 1-8)
- 도적질하지 말라(에베소서 4 : 28)
- 다툼 사람과 속히 화해하라(마태복음 5 : 23,24)
- 진실을 말하라(잠언 12 : 22)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내려야 할 대부분의 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분명한 명령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보다 속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주저함 없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하워드 헨드릭스**

---

에베소서 5장 17절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앞 절에서 기록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에베소서 5:15,16).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에베소서 4:17-5:17).

###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삶의 여러 부분에 대해 성경은 분명한 명령을 모두다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볼 만한 것인지 말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음악을 들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해 주지 않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복권을 사지 말라”와 같은 세세한 명령을 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곡식으로 만든 과자를 살 것인가 아니면 속에 젤리로 가득 찬 도넛을 살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란다면 성경은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월급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도 구체적으로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은 전적으로 우리 손에 맡겨 놓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성경을 통해 보편적인 원리를 제공하십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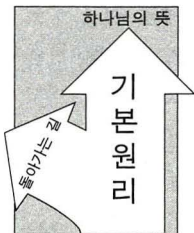
-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잠언 28 : 22)
-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마태복음 6 : 20)
- 군중들을 따르지 말라(로마서 12 : 1,2)
- 권위에 순종하라(로마서 13 : 1-4)
- 최선을 택하라(빌립보서 4 : 8)
- 너의 상사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골로새서 3 : 23)
- 충성되게 하라(고린도전서 4 : 2)
- 욕심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린도전서 6 : 12)
- 너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처럼 여겨라(고린도전서 6 : 19,20)
-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린도전서 10 : 31)
-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라(갈라디아서 5 : 1-6)
-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에베소서 4 : 27)
- 덕이 되는 말을 하라(에베소서 4 : 29)

- 남을 낮게 여기라(빌립보서 2:3,4)
- 힘써 일하라(데살로니가 전서 4:11,12)

이것들은 성경에 있는 많은 원리들 중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성경공부나 갖추어진 교사들로부터 배움으로써 우리의 삶에 적용할 성경적 원리들을 발견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또다른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과 원리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당신의 생활에 적용시켜 본 성경적 지침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살고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아직 그렇게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루중 시간을 구분해 성경적 가르침을 찾는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 (3)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 보십시오

당신이 바다에서 평화롭게 수영을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상어 지느러미가 당신을 향하여 오고 있는 것을 봤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

신은 다음의 몇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무시해 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향해 헤엄쳐 가서 맨손으로 죽이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상어의 주의를 끌지 않으면서 해변 쪽으로 서서히 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은 상어를 토닥거리려 친구가 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에 몇 가지의 선택은 분명 현명하지 못합니다. 상어를 죽이고자 한다든지, 친구가 되어 보려고 한다든지, 점점 다가오는 조스를 무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마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최선의 선택은 상어의 주의를 끌지 않으면서 재빨리 해변으로 도망치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당신은 모든 가능한 선택들, 심지어는 합리적이지 못한 것까지 동원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진 않을 것입니다. 그대신 상황을 재빨리 받아들이고 상어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에 기초해서 도망갈 궁리를 할 것입니다.

결정에 앞서 선택할 사항들에 대해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비록 당신 머리에 첫 번째 떠오른 선택이 옳은 것 같아 보여도 다른 선택들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선택이나 느낌이 반드시 올바른 상황판단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잠언 18:17).

## 당신의 선택의 결과들이 어떠한 지 생각해 봅시다

선택 가능한 것들을 나열해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취한 각각의 행동들이 가져올 결과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 상어라면 각 선택들의 결과를 생각해 보는 것이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학이나 직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선택과 관련된 결과들을 적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장의 선택이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떨어져 멀리 이사가야 하거나 월급의 급격한 감소를 의미한다면 이러한 사항들은 다른 직장을 찾아보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내린 결정이 여러분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칠 영적 영향을 고려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실까요?

“A직장이 B직장보다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낫기 때문에 A직장을 선택했다”는 표현이 “주님께서 나를 A직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영적이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첫번째 표현도 옳은 것이며 보다 솔직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좋은 판단력을 사용하게 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용할 두뇌와 모든

가능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이미 당신이 그 정보를 갖고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방향표지판을 떨어뜨려 주어야 합니까?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구두를 살까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머리를 사용하길 바라십니다. 높은 가격을 붙여 놓은 구두를 사며 돈을 낭비하거나,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이상한 색깔을 고른다든지 하는 것들은 지혜롭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편안하고 튼튼하며 가격이 적당한 구두를 고르는 것은 현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의 성경적 예를 초대교회의 생활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4절에서 누가는 제자들이 내린 현명한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구제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역을 감당하는데 지장을 받게 되었을 때, 구제사역을 담당할 도움을 구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은 일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지성을 주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주신다.  
-도슨 트롯맨

---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을 변화시켜 더욱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며, 삶의 결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갖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건전한 판단력은 단순한 것이든 복잡한 문제이든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도구입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판단의 능력은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당신만이 처한 특별한 상황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두 사람도 똑같지 않듯이 그들이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신이 누구인가 상관없이 당연히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내려야 할 여러 가지 결정들에 있어서 성경이 그 문제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거나 성



경적 원리들이 잘 들어맞지 않는 것 같이 보일 경우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열거해 보고 당신의 독특한 상황들을 적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용범이라는 청년이 은정이라는 여자친구에게 청혼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일은 분명히 세훈이라는 제3의 청년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영수가 국립대학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대학이 철수나 현정에게도 좋은 대학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신앙이 성숙한 어떤 그리스도인이 출석하는 교회라고 해서 당신도 그 교회에 꼭 출석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이러한 차이점들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 자신이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하는 판단의 기준에 따라 내 인생의 결정을 내리고 말 것입니다.

### **당신의 능력, 은사, 재능, 그리고 약점은 무엇입니까?**

만일 당신이 타이프를 전혀 못치는데 타이피스트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 응시한다면 현명한 일입니까? 시속 50마일 이상으로는 운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인디애나 500과 같은 자동차 경주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 말을 더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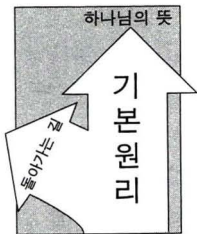
사람이 정치가가 되려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소켓렌치와 주걱의 차이를 모르면서 자동차 정비사나 요리사를 뽑는 인터뷰에 응시한다면 현명한 일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비만이고 초콜릿을 무척 좋아하는데 원한다면 당신이 제한 없이 사탕을 먹을 수 있는 사탕공장에 직장을 얻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까? 아니면 만일 성경을 가르치거나 상담을 하는 일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꼭 목회의 길을 가야 할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에게 이미 준비케 하시고 감당케 하신 그 일입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3장 1-7절과 디도서 1장 5-9절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목사나 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증거(에베소서 4:11)를 갖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가 목회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어떤 기회가 다가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당신의 능력과 관심, 심지어는 약점까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과거에 내린 중요한 결정들을 평가해 보십시오. 결정한 선택들과 그 결과들을 열거해 보십시오. 당

신의 결정이 성경의 원리에 어긋납니까? 당신이 내린 결정중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건강한 판단력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당신의 영적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남은 대안들 중 어떤 것에 마음이 기울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 (4)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십시오

낮설고 복잡한 길을 운전할 때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나 자신의 자아에 대한 도전 혹은 부부생활이나 친구 관계까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를 포함한 많은 운전자들이 잠깐 멈추어 도움을 청하기를 꺼립니다.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같이 차를 탄 부인, 남편, 혹은 친구가 나에게 잠시 차를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길을 물으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만약에 운전자가 그들의 조언을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묻는다면 불필요한 두통, 불필요한 시간과 물질낭비, 차속에서 일어나는 불필요한 긴장관계는 피할 수 있을 것인데도 말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왜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을 필요가 있는가?

대답은 분명해 보이지만 우리는 가끔 바로 이 점에서 실패합니다. 그것이 지나친 자존심, 지나친 자신감, ‘충고 공포증’, 혹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어리석게도 길을 묻길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신앙적으로 외로운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할 때, 안다고 하는 당신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돌아보십시오. 당신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수용하고 그 충고를 받아들이십시오.”

-제이 패커

---

## 다른 사람들로 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집을 처음 사려는 사람은 어떤 집을 살까를 결정하기 위해 많은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이 가장 적당한가? 집값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등등. 처음 신문광고에서 발견한 집을 보지도 않고 산다거나, 부동산 전문가의 충고를 들어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

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조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선택은 다 쓰러져가는 집을 비싼 가격에 사는 것과 고부가가치(高附加價値)가 있는 잘 지은 살기에 알맞은 집을 살수 있는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잠언 12장 15절에서 솔로몬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더 잘 볼 수 있고 우리 자신에게는 매우 주관적인 사안을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판단의 잘못들을 지적해 줄 수 있고 가치 있는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 **충고를 받으면 꼭 따라야 합니까?**

물론 아닙니다. 사람의 충고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충고는 다른 충고보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충고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지식이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많은 사람들이 이것 보다 저것을 하라고 충고한다는 것 가지고서 그 길을 택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다른 요소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전혀 상반된 충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나은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누구의 충고를 들어야 하는가?

당신이 잠수함 운항법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잠수함을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묻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혼상대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조언이 필요할 때 열 번씩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묻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뢰할만하고 적절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정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러면서도 주님의 지혜를 삶의 여러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주는 영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시편 1편의 처음 두 절은 올바른 충고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조언을 받으러 누구에게로 가야할 지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아버지

친구 분들의 지혜롭고 성숙한 조언을 따르는 대신 젊은 친구들의 충고를 따랐습니다(역대하 10장). 그 결과 르호보암은 왕국의 상당한 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지혜의 말을 듣는 대신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주는 사람들을 좇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지금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언을 구할 때 우리가 이미 내린 결정도 다시 생각해 보고 필요하다면 수정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이미 결정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충고를 주는 사람의 숫자에 근거를 두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왜 위험할까요? 당신은 이전에 다른 이들이 주는 조언을 효과있게 사용해 본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조언을 잘 듣는 편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스스로 연구해 보는 것이 왜 유익할까요?

### **(5) 당신의 자유를 사용하십시오**

빨간색 양말을 신을까, 파란색 양말을 신을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합니까? 이 일 때문에 기도하거나, 색깔에 대해 성경적 신학을 구하거나, 혹은 목사님께 자문



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녕 비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하는 순간 순간마다 고민 속에 헤메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결정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머리를 사용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한 예로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하셨습니다(창 2:19, 20). 아담이 몹시 당황해서 “하지만 하나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이름을 짓고 있는지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의 다른 한 예는 아담의 음식 선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만 제외하고는 어떠한 나무에서든지 그 과실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매우 큰 자유였습니다. 물론 후에 아담과 이브가 그들의 자유를 너무 확대시켜서 하나님을 불순종했지만, 그 안에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명령들과 원칙들이 불분명한 것들을 결정할 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의 물고기는 자기의 지느러미를 움직여 원하는 어떤 곳으로라도 헤엄쳐 갈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가 펄떡거리 땅위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같은 결정은 그 물고기에게 매우 치명적일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과 그의 지혜로우신 뜻에 맞는 좋은 여러 선택들 중에서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하면 우리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내가 값이싼 차를 사는 대신 고급차를 산다면 그것은 성경적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그 선택에 있어 자기 아내의 의견을 무시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에베소서 5:25-33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은행으로부터 많은 빚을 져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조차 살 수 없을 만큼 되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에 위배됩니다(디모데전서 5:8). 그러나 내가 자동차를 선택하는 것은 성경적 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충분한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고 하나님

이 주신 지적인 능력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좋은 선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불확실하다면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까?**

간이음식점에서 햄버거를 먹을까 치즈버거를 먹을까 망설이면서 줄을 서 있어도 당신이 내린 결정의 결과는 당신의 인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차례가 되어서 계산대의 점원이 “무얼 드시겠어요?”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바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줄에서 비켜서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로 고민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청혼이나, 직업선택, 위험부담이 있는 수술을 할것인가 말것인가의 결정, 불치병 친척을 어떻게 돌볼지에 대한 결정과 같은 좀 더 중요한 결정들은 어떠할까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기다리면 더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거나,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좀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 기다려보는 것도 현명할 지 모릅니다. 서두르는 것이 미덕은 아닙니다(잠언 21 : 5을 참조하십시오).

---

**“성경은 인생의 지도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방향을 제공합니다.”**  
-해든 로빈슨

---

어떤 결정에 대해서 당신에게 심한 불안감이 있다면 왜 그렇게 느끼는지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마음에 평안히 없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았거나 우리의 양심을 어기는 것이거나(로마서 14:23), 혹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빌립보서 4:7).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느낌을 사용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느낌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보다는 우리의 감정이 만들어 낸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는 아직 정보가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걱정하거나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분석마비상태나 판단불능증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 **동전 던지기를 해도 됩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다소 세상적이라고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의 말씀 안에 있는 원칙들을 찾으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상식을 따랐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주는 좋은 충고를 들었다면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전을 던지거나 마음대로 선택을 한

다거나 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은 여러 좋은 대안들 중에서 선택을 내려야 할 때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33절에서 솔로몬은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제비뽑기와 추첨, 동전 던지기는 같은 유형에 속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바를 나타내기 위해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아론은 속죄절에 희생 제물로 쓸 염소를 고르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레위기 16 : 8-10).
- 느헤미야는 일의 책임을 나눠주기 위해 제비뽑기를 했습니다(느헤미야 10 : 34).
- 솔로몬은 제비뽑기는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잠언 18 : 18).
- 요나는 선장이 제비뽑았을 때 범인으로 발각되었습니다(요나서 1 : 7).
- 충원이 필요했을 때 맛디아는 제비뽑기로 사도로 뽑혔습니다(사도행전 1 : 23-26).

모든 가능한 정보로도 명확한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러나 결정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선

택의 자유를 사용하십시오. 혹은 결정을 못해 마비상태가 되면 그냥 동전을 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둘 중 어느 선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그를 기쁘시게 하길 진정으로 갈망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 2:13).

###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기도도 해 보지 않고 또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채, 매일 내리는 결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결정 앞에 가장 고민하고 주춤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책임감 있게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더 큰 상황에 맞추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진 선택의 자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지침도 주지 않고 우리를 거친 광야 한 가운데 내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모든 사

람들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는 그의 말씀 안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의 선택을 평가할 수 있는 이성적인 사고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충고의 형태로 유용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정에 있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명한 경고나 금지의 메시지가 없을 경우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그를 위해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소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원할 때,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리석었거나 불순종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말입니다.



### 3

## 조용한 자극

필립 안시

인도하심이란 무엇인지를 묵상보면서 최근 나의 인생에 일어난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경험한 이 사건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기술적인 방법의 예로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황시키지 않으시면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조용한 자극의 예들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고백컨대, 그 사건들이 있는 후 몇 달 혹은 몇 년 후에 뒤돌아보면 적어도 내게 있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은 분명합니다. 간접적인 인도였지만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내려야하는 순간마다 나는 혼란과 불확실함을 느낍니다. 참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거의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묘했고 간접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경력에서 중요한 갈림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학창생활(Campus Life)」이라는 잡지사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나는 두 개의 맞지 않는 방향 사이에서 팽팽한 알력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관리, 영업, 마케팅, 예산 등에 흥미를 느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편집과 저술에도 관심이 많은 차였습니다. 몇 달간 나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손을 대면서 어느 한 쪽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선교의 기회, 보수, 그리고 흥미 면에서 똑같이 끌렸습니다. 나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즐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조직의 필요를 들어 내게 관리업무를 권했습니다. 그 결정을 놓고 자주 기도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중 얼마 후, 나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 나는 내자신 신체 관리의 어려움을 잘 처리해 나가고 있었고 외관상으로는 매우 건강하게 보

였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나는 하루에 한두 시간 밖에 잘 수 없는 심한 불면증을 겪었습니다. 그 증상에 대해 더 자세히 깨닫기까지는 약 일년이 걸렸는데, 다름이 아니라 저술활동을 할 때는 잠을 잘 자고 관리업무를 할 때는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달 동안 이 같은 현상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스우리만큼 거의 분명하게 나타내는 증상이었습니다.

---

**“내게 있어서 인도하심은 몇 달, 몇 해가 지나고 나서야  
분명해진다”**

---

한때 나는 한 주는 저술을, 또 다른 한 주는 관리업무를 했었습니다. 정말로 저술하는 한 주 동안은 마치 엄마 뱃속에서 자고 있는 아기와 같이 잠잘 수 있었고, 관리업무를 하는 주중에는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들은 적은 있지만 불면증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줄은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상황은 결코 바뀌지 않았고 마침내 나는 불면증이 내

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돌이켜보니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직접적인 인도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내가 어떤 책을 쓰도록 만들어간 환경을 생각해 보고저합니다. 「고통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책은 거절당함의 아픔을 겪은 후 쓰여진 책입니다. 이에 앞서 1975년에 나는 이와 같은 책 쓰기에 아주 멋지다고 여겨지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존 돈이란 사람이 불치병으로 누워 있는 동안 쓴, 총 23편으로 된 명상록 중 하나인 “기도”편을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뛰어난 착상들이었으나 킹 제임스 시대의 영어로는 현대의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캔 테일러가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을 다시 쓴 것을 본받아 존 돈이 쓴 ‘기도’를 ‘현대기도’ 혹은 ‘개역기도’로 다시 출판할 것을 여러 출판사에 제안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나는 초본을 완성하였지만, 모두들 이것을 문학적 연습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현대서적으로서는 전혀 시장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때 나의 상사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그는 “문제는 시대적인 언어만이 아니라, 시대적 배경 그리고 시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현대의 예를 들면서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에 대해 당신 자신의 책을 직접 저

술해 보는 것이 어떻겠소?”라고 내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통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 고통에 대한 세계적 권위자인 폴 브랜드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아내가 한 기독교 휴양기관의 창고를 정리하면서 발견한 보고서를 통해서 우연히 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국제 학술 보고서에 당신이 좋아하리라 생각되는 고통에 관한 논문이 있어요.”라고 내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브랜드박사의 독특한 시각은 나를 매료시켰고 나는 가능한 빨리 개인적으로 그를 만나길 그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는 결국 지난 20년간 그의 서류함에 간직되어 있던, 기도에 대해 그가 토론한 것을 적어 놓은 한 낡은 필기본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것이 저의 「경외롭고 훌륭하게 이루어지다」란 책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에게 있었던 이 일과 또 다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종합해보면 어떤 일정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당시에는 그 일들이 내 인생의 다른 사건들보다 더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 출판제안에 대한 거절, 창고 안의 곰팡이 낀 책자, 20여년전 인도의 어떤 모르는 사람의 기도에 관한 토론의 기록 등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근본적인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라고 거의 결론을 내릴 정도로 이러한 패턴들은 나에게 종종 되풀이곤 하였습니다(그리고 저에게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인도하심은 거의 드물 정도로 일어났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음에 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바라고 의지합니다. 적어도 내 자신의 경험에 따르면,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초점은 먼 미래가 아니라 내 앞의 순간, 즉 현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 상황이 더 좋아지든지 혹은 더 나빠지든지, 나는 순종과 믿음을 지속적으로 보일 수 있는가?

---

**“모든 초점은 내 앞의 현재 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의 지난날을 돌이켜 보았을 때 분명해 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나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나는 현재 더 많은 책을 쓰

려고 매일 노력하며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나를 포함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어서서 그 그림이 무슨 색과 디자인으로 되어있는지 뒤돌아 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흐를 때까지는 그 모양이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정해진 순서대로 그리는 화법같이 미리 그 패턴을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위한 공간은 없어질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정해진 순번대로 그림을 그리시지도 않습니다.



## 4

#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이 소책자는 인생의 여러 복잡한 결정사항들에 대해 모든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질문들에 대한 당신의 대답들은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 중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가?
- 단지 이번 결정 뿐 아니라 내 인생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를 갖고 있는가?
- 나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 나는 변할 수 있는 느낌보다는 건전한 이성에 근거해 움직이고 있는가?
-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가고 있는가?
- 내가 처한 특별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적인 명령들과 원칙들이 있는가?
- 선택 가능한 대안과 결론들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성경에 비추어 판단해 볼 때 어떻게 될 것인가?
- 나의 능력과 약함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미친다면 어떻게?
- 나의 결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며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가?
- 훌륭한 조언자들을 찾아보았는가?
- 조언을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거부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평가해 보았는가?
- 이 결정이 나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인가?
- 나는 나의 결정이 올바름으로 인해 평안을 갖고 있는가?

- 기다리는 것이 유익한가 아니면 손해가 되는가?
-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할 수 있는가?

# 「한국 오늘의 양식사」

발행인 : 김 상 복

편집장 : 김 승 호

고 문 : 최 태 의

위원장 : 김 경 현

봉사위원

부 서	부 장	위 원
총무부	차일환	임길택(서) 고선자 박정숙 신진희 이명재 이영성 이원복 이은자
기획부	정호균	오명근 성윤경 조용균 박동건 이재일 신현진 이정연 장주옥 이지용 신혜룡
회계부	최석주	전미란
관리부	이종규	박기애 박종세 변용자 신선희
출판부	이덕진	김숙희(차) 강희숙 권윤수 박정은 신명연 신영균 이은숙 이창규 최부웅 박영희
발송부	임길택	김덕이 김원겸 김부자 박승호 박재남 방영자 백성숙 서순동 설재란 성기량 오명근 오인숙 유순희 윤은섭 이원복 전화자 정복남
홍보부	김대환	김철중 박대섭 방명자 배귀장 이선애 이옥자 이종삼 조영자 채낙녀 최완철 황금숙
상담부	김영자	강신영 강화수 권윤수 김경분 김숙희 김정희 김해선 김혜숙 김화지 남선희 민태명 박영희 박정숙 변용자 손순주 신선희 신진희 안진숙 이경옥 이금자 이명숙 이상옥 이순임 이영희 이용효 이유신 이혜영 조해순 하숙향 허수진

신앙성장시리즈 12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인 쇄 / 1999. 5. 10

발 행 / 1999. 5. 15

제 작 / 소망사 ㉠ 733-4242 ㉡ 733-4243

발행처 / 한국 오늘의 양식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2

전 화 : (0342)780-9565~7

FAX : (0342)780-9569

인터넷 : <http://www.hallelujah.or.kr>

인터넷 : E-mail : [hansanle@ppp.kornet21.net](mailto:hansanle@ppp.kornet21.net)

## 한국 오늘의 양식사 <신앙성장시리즈 발간 안내>

한국 오늘의 양식사에서는 미국의 R.B.C. (Radio Bible Class)에서 발행한 소책자시리즈 『Discovery Series』를 번역, 편집하여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신앙성장시리즈』로 발간하고자 합니다. 이 소책자들은 성경말씀을 기초로 하여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및 교회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신앙성장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1999년 9월을 발간 목표로 준비하고 있어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리즈번호	제 목	내 용
1	절망에서 희망으로 "How To Get Up, When You Are Down"	고난을 극복하는 길
2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Who Needs The Church?"	교회의 본질
3	오 신실하신 하나님 "Believe, God Is Faithful"	하나님의 인도와 용서하심
4	복 있는 사람 "What Does It Take To Be Happy?"	행복의 조건
5	균형있는 가정 생활 "Does the Bible Contradict Itself About the Family?"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정 생활
6	왜 살아야 하나? "Why In the World Am I Here?"	삶의 창 뜻과 목적
7	행복한 결혼생활 "What Will Make My Marriage Work?"	성공적 결혼의 10가지 요소
8	남자다운 남자 "What Does God Expect of A Man?"	하나님이 바라시는 남자상
9	여자다운 여자 "What Does God Expect of A Woman?"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자상
10	걱정없이 살고 싶다 "What Can I Do With My Worry?"	걱정의 본질과 해결
11	다시 찾은 사람 "The Way Back"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
12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How Can I Know What God Wants Me To Do?"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

# 「신앙성장시리즈」 구독청원서 및 선교헌금 안내

청원및 헌금자	성명 주소	전화	(우편번호: )
받는사람	성명	전화	(우편번호: )
	주소	직분	
	출석교회		
	직장명		
	부수		
		헌금입금은행: ( )	은행

**\*선교헌금안내**

『한국 오늘의 양식사』는 『신앙성장시리즈』를 통하여 성도들의 영적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 책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제작비(권당 600원, 운송료 포함)를 도울 선교헌금을 보내주시므로써 문서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좌번호 <예금주: 할렐루야선교원>**

한빛 : 122-143075-01-101	한빛 : 132-05-108980	국민 : 097-01-0199-703
서울 : 16301-1886909	우체국 : 012773-0026681	제일 : 107-10-109840
농협 : 001-01-214911	조흥 : 308-01-137748	외환 : 026-13-33750-7

보내실 곳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2 『한국 오늘의 양식사』  
전화(0342)780-9565~7 FAX (0342)780-9569

(별도의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 신앙성장시리즈 12

###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소책자는 성경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다음의 다섯가지 기본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십시오
-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십시오
-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십시오
- 당신의 자유를 사용하십시오



**Radio Bible Class**

이 책자는 미국의 R.B.C(Radio Bible Class)에서 발행한 "How Can I Know What God Want Me To Do?"를 『한국 오늘의 양식사』에서 비매품으로 번역 출판한 것입니다.